

외국인 투자자들 ‘안전자산’ 선호 채권 사들이고 유가증권 팔아치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지난달 채권시장서 18.5조 매수

미국 국채 ‘관세전쟁’ 리스크에
한국 국채 ‘대체재’ 부상 분석도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한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18조원 넘게 국내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9조5657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 치운 것과 대조적이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한달간 장외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18조4800억원에 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은 올라 채권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지난달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3개월 내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등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통위원들은 5월에 우리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므로 전



Chat GPT로 생성한 채권은 사들이고 유가증권은 팔아치우는 투자자.

망 수정치와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오라가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 지위가 흔들리자 글로벌 자금이 ‘대체재’를 찾는 과정에서 한국 국채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중 4.4920%까지 오르기도 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충격이 경기 둔화와 달러 자산 매도로 연결돼 미국 자산의 약세가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 국채는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사이클, 원화 저평가, 차익 거래 유인, 크레딧(신용 채권) 공급 제한 등 강세 재료가 심화하며 주요국 채권 중

가장 강한 (금리) 하향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선 이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IMF(국제통화기금)가 관세 전쟁 영향을 반영하면서 1월 경제 성장률 전망 대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폭도 커질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2.75%에서 연 2.00%로 연내 세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분위기는 탄탄이다. 4월까지 셀코리아가 9개월째 이어졌다. 역대 2위다. 외국인의 역대 최장 순매도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11개월이다.

주식시장은 냉탕, 채권시장은 온탕인 이런 차이는 왜 벌어지는 걸까.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입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위험 신흥국’이다. 글로벌 주식 시장의 ‘지표’ 역할을 하는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국가 분류에서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에 속해 있다. 특히, 관세 전쟁이 터지면서 투자자가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면서 ‘위험 신흥국’으로 분류된 한국 주식에서도 덩달아 많은 자금이 빠져나간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김성환(오른쪽)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지난 5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뉴욕 골드만삭스 본사에서 존 월드론(John E. Waldron) 골드만삭스 사장(President) 겸 COO(최고운영책임자)와 전략적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 골드만삭스 펀드 국내 판매

양해각서 맺고 펀드판매 권한 확보
직원 지식교류 등 전략적협력 포함

한국투자증권은 전날(현지시간) 골드만삭스와 양해각서를 맺고,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펀드를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 계열사로, 올해 1분기 말 기준 총 3조1700억 달러(약 4468조원)의 자산(AUS)을 관리하고 있다.

양해각서에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펀드 소싱, 골드만삭스 마켓 업데이트 및 자료 공유, 골드만삭스와 한국투자증권 직원 간의 지식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략적 협력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앞으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펀드를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국내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투자전략 그룹의 시장 전망 자료를 활용한 리서치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다양한 글로벌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한국투자증권은 전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골드만삭스와의 협력은 한국투자증권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K-금융의 글로벌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금융 상품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고객 자산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에서 가장 글로벌화한 아시아 No.1 투자 회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널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아태지역 고객솔루션그룹 공동대표는 “한국은 골드만삭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전문성과 강력한 판매망이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글로벌 입지, 검증된 투자 역량 및 리스크 관리 체계와 결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尹 야심작’ 밸류업ETF, 관제펀드 전략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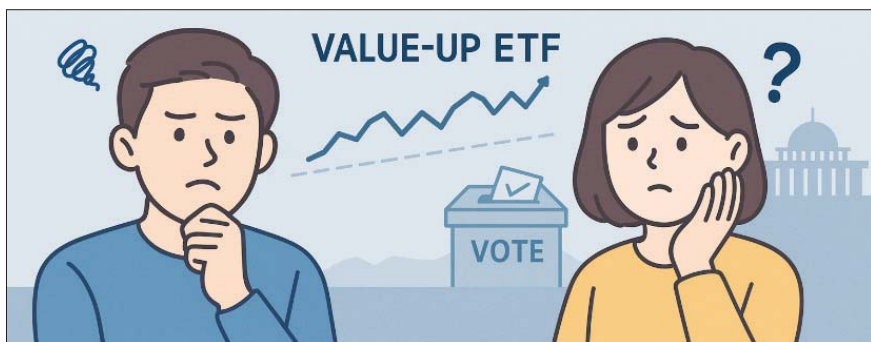
코리아밸류업 ETF로 본 업계 셈법
천덕꾸러기 vs 여전히 유효 ‘이견’

“다른 투자처는 뭘 팔고 있다. 쥐꼬리만 한 수익 챙기려다 기회비용만 날리게 생겼네요.”(회사원 이모씨)

국민 재산 증식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코리아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천덕꾸러기 신세다. 밸류업의 목표는 투자자들이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에 투자하게 해 국내 증시를 도약시키는 것이었지만, 초라한 투자 성적으로 녹색펀드·뉴딜펀드 등과 같은 관제펀드로 전략할 처지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일 동시 상장된 코리아밸류업 ETF 12종의 전체 평균 수익률은 6.68%다. 코스피 수익률(6.71%)보다 못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은 코리아밸류업ETF가 관제 금융상품의 저주에 빠지는 건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나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들은 출시 이후 반짝 인기를 누리다가 투자자 외면을 받고 판매가 중단됐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윤 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ChatGPT로 생성한 ‘코리아밸류업 ETF’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모습.

의지를 밝혔지만, 그런 경제적 이슈를 정책 금융상품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부터가 안이하다”면서 “캠페인식 금융상품 출시로 손해 보는 건 결국 금융 소비자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해서 나온 상품 중에 돈이 된 상품이 있느냐, 금융은 가만두는 게 답”이라고 지적했다.

시작은 정책 주도형이었더라도, 본래 취지인 ‘기업가치 제고’라는 방향성에 충실하다면 코리아밸류업 ETF가 시장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의 코리아밸류업 ETF 운용역은 “밸류업이라는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어떤 차기 정부가 들어서든 상법·세법 개정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명칭이나 캐치프레이즈가 바뀌더라도 제도적 방향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지수를 추종하는 밸류업 ETF는 이미 잘 알려진 대형 우량주 위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주주환원 성장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며 “오히려 향후 중견·중소기업들이 자본 배치 변화나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주주환원 모델을 보여줄 수 있어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코리아밸류업 ETF는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우량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라는 보편적인 테마를 다루고 있기에 정치에 좌우될 상품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전 정권의 정책 ETF’라는 인식만으로도 수급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ETF 이름을 바꾸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암·난치병 치료, 탈모 근본해결 도전”

코스닥 CEO 인터뷰

강다윗 한바이오 대표

NK면역세포·모유두세포 등 기반
세포치료제 개발·보관 사업 주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NK세포 기반 면역치료가 새로운 항암치

료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바이오는 지난 2022년 식약처로부터 세포치료시설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으며, 군포 연구소에 GMP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구축했다. 모유두세포 대량 배양, NK세포 대량 배양 관련 특허도 잇따라 확보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

실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상담과 시술이 어려워 부침을 겪었지만, 지난해 소폭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강 대표는 “첨생법 시행에 맞춰 시설과 인력을 확충했고 협력병원 네트워크 넓혀왔다”며 “올해부터 국내외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웰니스(Wellness)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준비 중이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항노화 프로그램, 해외 지사 설립 등을 통해 북미와 아시아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강 대표는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에 현지 거점을 구축하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kdh@

“암과 난치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미래를 만든다.”

세포 전문 바이오기업 한바이오의 강다윗 대표는 이 한 문장을 회사의 존재 이유로 꼽았다. 인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를 연구하고 배양해 다시 환자 본인의 몸을 치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한바이오의 사명이다.

강다윗 대표는 “인간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며 “자기 세포를 통한 치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도 자기 세포로 스스로를 치료하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한바이오는 이 흐름 속에서 세포 배양 및 보관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회사의 주력 사업은 NK면역세포, 줄기세포, 모유두세포를 기반으로 한 세포치료제 개발과 세포 보관 서비스다. 특히, 모유두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 대표는 “암과 난치병 치료와 함께 탈모